

PHOTO ESSAY

사진산책



문래동 철공소 거리

이호준 Lee, Ho-Joon |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덟 차례의 개인전과 아홉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한
아
예

길을 걷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사물을 만날 때가 있다. 낡고 마모된 빨래판, 벽에 걸린 라이터와 작은 가위, 철공소의 한구석에 놓인 손때 묻은 공구, 상가 조명등 같은 사소한 것들. 누군가 보라고 내놓은 장식물도 특별히 꾸며낸 것도 아니다. 그저 같은 자리에 한동안 놓여 있던 것들이다. 나는 이런 피사체를 만날 때 참 좋다. 발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바라본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 매일 그곳을 지나가지만 그저 스칠 뿐이다. 카

메라를 든다는 건 그런 의례적 통과를 잠시 멈추는 행위이기도 하다. 일상의 배경이었던 것을 주인공의 자리로 끌어오는 일이다. 이를 '낯설게 하기'라 한다.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하찮은 일상의 소품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술은 미술관 안에만 있지 않다. 골목 어귀 허름한 벽 위에 누군가 걸 어둔 물건도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있다. 천천히 걷고 시선에 여유를 두면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나는 골목을 걷는다. 멈춰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세상이 숨겨둔 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난다.